

# 중앙본부, 2004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2004년 상반기 중앙본부 회계감사가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5일간) 실시된다.

수감기간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로 건전한 노동조합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2004년 상반기 지출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 회감기간 : 2004년 9월 6일 ~ 9월 10일 (5일간)
- 회감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회감내역 : 2004년 상반기 지출내역

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며, 2004.4.16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최종선고에서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박성갑 외4525)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최종 패소하여 소송잔여금액 1인당 약61,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 <전국 IT 산업노동조합 연맹 성명서>

**노동자가 나서서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을 바로 세울 것이다.**

## 전국 사무국장 회의소집

군경력 퇴직금 반환소송 잔여비용 처리에 따른 전국 사무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제목 : 전국 사무국장 회의
- 일시 : 2004년9월9일 14:00시
-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회의실

`99.06.30일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변경된 근로자(82,83년 전환자)의 군 입대 휴직기간(73.01.01~ 공사 전환시)의 2분의 1 감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박성갑외 4525명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02.7.24일 선고된 1심(지방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2003.7.1일 선고된 2심(고등

1. 정보화 촉진기금 관련하여 연구과제 선정부터 납품과정에 이르기까지 기금 조성과정과 집행 주도했던 정보통신부 직원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등 30여명이 지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각 언론에서는 'IT기금 10조, 비리 사슬' 이니, '돈 못 먹으면 바보?', '눈먼 돈, 총체적 비리, 먹이사슬' 등의 타이틀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정보화 촉진기금을 당초 목적이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고도화를 위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조 2873억원이 모아졌고, 이중 7조 4363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엄청난 기금 중 목적에 제대로 쓰여진 것을 얼마나 될까, 그리고 비리가 검찰에

서 밝힌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일까?

이제 국민들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또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땀질식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35조에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 진행된 정보화 촉진기금 비리 사건 때, 장관이 그 책임을 졌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단지 적발된 몇몇 당사자만 처벌을 받았고, 그들은 운이 나빠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러 저러한 각종 처방이 나왔지만 비리는 해가 갈수록 더 규모가 커지고 계속되고 있다.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되어야 한다. 기금 수혜자 선정과정부터 기금 운영과정, 감사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금 운영은 일시 중지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대책기구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상당부분은 통신업체에서 사업자 선정 때 납부한 기금이거나 매출액의 일부를 준조세로 납부한 기금이기에 기간통신업체노동조합은 당연히 중요한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독재권력과 자본가와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헌신한 경력을 갖고 있기에, 기금운영과 관련된 먹이사슬을 폭로할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함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의 결과인 정보화촉진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신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자들이 나서서 정보화 촉진 기금운영을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우리들의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리의 온상인 정보화 촉진기금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기간통신업체에게 부과되는 기금할당도 거부토록 사측에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9월 2일

민주노총 전국 IT산업노동조합 연맹

## IT연맹, 민주노총 가입 승인 과정과 전망

지난 3월 이재식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내에 IT연맹을 새로 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대의원들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한바 있다.

KT노동조합의 경우 IT연맹 건설이 지난 상품 판매투쟁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새 연맹 건설 작업을 꾸준히 준비했으며, IT연맹을 건설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 받았다. 또한 공공연맹도 탈퇴하였다.

이는 지난 25일에 열렸던 민주노총 총집회의에서 IT연맹에 대한 가입승인건을 논의,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17대13으로 가입이 승인됐으며, 이로써 IT연맹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KT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을 탈퇴한 KTF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체 조합원 수는 3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IT연맹 건설의 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IT연맹의 향후 전망을 조명해 보자.

3월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들은 IT연맹 건설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바 있었다. 이에 지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설득을 통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 교섭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IT분야를 전문적으로 대정부교섭을 할수 있는 새로운 IT연맹이 필요하다"며, 또한 8대집행부 초기에는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IT연맹 건설은 무리였다"고 설명하고 설득하여 전국대의원들의 결의를 얻어 냈다.

또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공공연맹탈퇴와 관련해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재 조직대상이 서로 겹치는 연맹들이 있는 현실에서 가입신청을 한 조직을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대산별 문제는 조만간 다른 산별연맹을 포함한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중집위원들도 "민주노총이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 동의했다. KT노동조합이 공공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이 없고 'IT업종'에 한정해 조직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조직분열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무튼 꾸준히 준비해온 덕분에 KT노동조합을 주축으로한 IT연맹은 민주노총 가입이 승인되었다.

한편 IT연맹은 26일 성명서를 통하여 "한국의 IT산업은 그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한시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남발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가속시켜 왔으며,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도급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제 IT노동자들의 단결은 역사적인 요구와 흐름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 7월30일 전국IT산업노동조

합연맹은 창립식을 통하여 IT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IT산업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통해 한국 IT노동자 단결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IT연맹을 창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어렵고 힘들게 건설된 IT연맹인 만큼 민주노총 산하 IT연맹은 안으로는 IT산업노동자의 구심으로 그 지위를 공공히 하고 업종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밖으로는 정부의 통신정책 등에 적극 대응해 정통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하고 수정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내년에 결정키로

2차 중앙위, 팽팽한 논란 끝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 합의

그 동안 논란이 돼온 사회적 교섭 관련 방침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노총은 8월31일 2차 중앙위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 끝에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대응방침을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지난 9차 중앙집행위(8월 25일)에 이어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 방침결정 시기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참여에 동의하는 중앙위원들은 △4기 집행부의 선거공약이라는 점 △올해 사업계획에서 결정한 방침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투쟁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 △굳은 투쟁결의만 있다면 교섭이 두려울 게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속한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참여에 부정적인 중앙위원들은 △노사정위에서 이용당한 경험에 비춰 '활용'보다는 이용

## 4주간KTTU

당하기가 쉽다는 점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중투쟁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 △정부·자본의 의제에 끌려갈 것이라는 점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참여를 반대하거나 좀더 충분한 토론을 주장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려나감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던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중집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립적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방침을 정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이 안건 자체를 어차피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도록 돼 있고, 최악의 경우 중앙위에서 표결처리를 하면 대의원대회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상황설명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9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지 않고, 충분한 인식공유와 토론을 통해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다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한다'는 중집위원 간담회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중앙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한 뒤 '10월10일 총력집회 등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내내 놓고 투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상벌규정, 사무총국 규정 등을 개정했으며, 조준호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인준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15명 정도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질병이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10명 중 9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몸이 아파도 대개는 일이 바빠 참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2년 건강진단을 한 17만1795개 사업장 근로자 274만125명의 진단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인 근로자는 15%인 41만703명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질병 초기단계인 '요관찰자'가 67.9%인 27만8864명이었고, 일반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31.5%(12만9420명),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0.6%인 241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질병의 종류는 소화기 질환이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순환기 질환 32.2%, 영양·대사 및 알레르기 질환 등 내분비 질환 16.2%,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등 혈액조혈기 질환 4.7%, 호흡기 질환 2.7%, 신경감각기 질환 2.2% 등의 순이었다. 이를 근로자 1만명당 발생률로 환산하면 소화기 질환은 180.7명, 순환기 질환은 166.9명, 내분비 질환은 83.9명, 혈액조혈기 질환은 24.5명, 호흡기 질환은 13.9명, 신경감각기 질환은 11.6명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질병 종류는 소음성 난청(82.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진폐증(15.6%).금속중독(1.0%).유기용제 중독(0.2%) 등의 순이었다.

건강검진센터 KMI 서동원 원장은 "의사가 경고해도 당장 아프지 않거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는 직장인이 많다"며 "가벼운 병을 큰 병으로 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안전** 질병 있는 근로자 90%  
"아파도 참고 일한다"

**산재 최저보상액 13.1% 인상**

**9월1일부터 최고기준금액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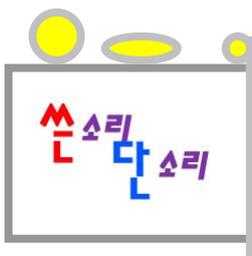
오늘 9월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3만7020원에서 4만1869원으로 13.1% 오른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을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3.1% 인상되고, 최고보상기준금액도 하루14만5800원에서 15만1249원으로 3.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만275원, 최저금액은 707만8875원으로 각각4.3%와 6.1%씩 상향 조정됐다.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도 간호사 간병기준으로 하루 5만36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6539원, 가족 및 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4977원씩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에는 50%가 가산된다.

노동부는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여 명이 42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 휴일 근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쓰소리단소리]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4-9-2]

임단협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5일근무에 들어간 현업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현업실정에 맞게 도급을 하는 곳과 자체 직원들만으로 휴일근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전화국 등의 자체 방안으로 근무를 서오고 있다.

도급만으로 토,일요일 휴일근무를 운영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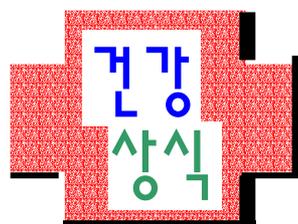
에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연차포함다쉬면 연중 1/3을 쉬게 되는데, 무조건 전부 도급만 고집하면 A/S맨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준거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 평일마저 도급업체에 위탁 운영 될 수도 있다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내 스스로가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현장을 지키는 길은 가능한 도급업체에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가 현장 A/S에 상당부분을 지키고 있을 때만이 고용안정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휴일근무를 도급업체 없이 직원들로서고 있는 전화국에서는 휴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무자수를 턱없이 모자라게 축소하여 운영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럴지 않아도 현장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KT현장은 휴일날이 되면 주5일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살인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휴일근무 고장 A/S는 익일로 상당부분 편법으로 넘기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현장에 대한 인력충원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현업 자체실정에 맞게’ 라는 표현은 관리자로 하여금 휴일근무자수 축소운동 등과 같은 비용감소 경영의 자의적인 빌미를 주고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현장의 휴일근무 운영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근무방법, 근무자수, 도급업체 운영 등 다양한 자료들과 그 대안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한다.



팔 휘두르는 속도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

[출처 : paran건강상식]

걷기가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성인병 등을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하는 데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강상식이 됐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 6주간KTTU

제대로 걷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잘못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키운다. 연일 걷기 좋은 날씨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 입고 공원으로 나서는 것은 어떨까. 물론 먼저 걷기의 건강학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말이다.》 ▽ 걸을까 달릴까=힘은 질량과 가속도 크기에 비례한다. 이 운동법칙은 걷기와 달리기에다 적용된다.

달리기의 경우 속도가 빠른 데다 양발이 공중에 떠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충격이 하체에 가해진다.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천천히 달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달리기는 심폐지구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발을 차내고 공중으로 띄우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은 약점이다.

반면 걷기는 시계추처럼 발이 움직이면서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오래 운동할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도 걷기의 장점. **달리기가 걷기보다 칼로리 소비량에서 2배 정도 많다. 그러나 체지방 소모량은 큰 차이가 없다.** 가령 체중 60kg인 남성의 경우 30분간 빨리 걸으면 142Cal, 달리면 250Cal가 소모된다. 그러나 체지방 소모량은 각각 71Cal, 82.5Cal 정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 무턱대고 걸으면 정강이와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기 쉽다. 터벅터벅 걸었을 때,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걸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휴식이 '약'이다. 이를 약물고 걸으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초보자는 낮은 속도로 시작한 뒤 시속 6~6.5km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올리는 게 좋다. 매일 걷는 게 중요하다.** 시작 전후 반드시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한다. 러닝슈즈는 대부분 수명이 800km 내외인 점을 감안해 자주 교체해야 한다.

▽1만보 걸을까 빨리 걸을까=웰빙 열풍으로 하루 1만보 걷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루에 1만보를 걸어도 속도가 느리면 심폐기능 향상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심장을 자극하려면 맥박이 평소보다 50% 이상 더 뛸 정

도, 즉 30분간 3km 이상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파워워킹'은 이름만 다를 뿐 빨리 걷기와 같다. 보통 시속 6.4~8.0km로 급보나 강보에 가깝다. 다만 팔을 더 활기차게 흔드는 것이 약간 다르다. 시선을 15m 전방에 둔다. **팔꿈치는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약간 구부리고 걷는다.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의 보폭으로 짹짹 움직이는 게 포인트다.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쉴다.**

걷기 중 가장 빠른 경보는 달리기와 속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엉덩이나 무릎, 발목 관절이 다치기 쉬워 일반인에겐 무리다.

1만보 걷기는 비만 해소에는 좋다. 활동량을 늘려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보통 성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2500~3000Cal. 이 중 300~400Cal은 몸에 쌓인다. 1만보, 즉 7~8km를 더 걸으면 이 여분의 칼로리가 소모된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의 연구결과 **매주 4회, 45분 이상 걸었을 때 체중이 8.2k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가 지방을 줄인 것이다.**

주말에 떠나는  
문 화체험

가을과의 첫인사를  
덕유산 산행과 함께

[출처 : 와우트래블 주말여행]

이제 저녁이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문득 가는 여름이 아쉬워하며 가을과의 첫 만남을 가져보자.

무더위를 툭툭 털어내고 가을을 맞는 여행으로 산행이 제격이다. 산을 오르는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하산하는 일정을 늘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찾은 곳이 덕유산(1,614m)이다.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남 거창군, 함양군 등 4개군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에 이어남한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다. 산세가 험해 등산객들도 힘들어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산으로 변했다. 무주리조트에서 운행하는 관광곤도라 덕분이다. 등산이 아니라 산행으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덕유산과 무주리조트는 드라마 ‘여름향기’의 주촬영지였다. 최근 일본의케이بلTV를 통해 방영되면서 ‘겨울연가’에 이어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고한다. 남이섬, 용평리조트에 이어 새로운 한류관광지로 자리잡을 움직임이다.

문득 덕유산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이유가 궁금했다.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답을 알 수 있었다. 온 산 가득 싱싱한 푸르름을 간직한곳, 정상에 서면 서늘함마저 느껴져 한여름에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곳, 구천동 33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계곡을 품은 곳, 덕유산에서 뿜어나는여름 향기이다.

원래 덕유산 등반코스는 무주구천동에서 시작, 백련사를 지나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오른 다음 하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주리조트가 시작점이다.

겨울철 스키리프트로 사용되는 곤도라를 이용하면 15분만에 설천봉(1,520m)에 도착한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고사목들이 열병식이라도 벌일 듯이 늘어서있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발 아래로 펼쳐지는 운해 사이로 점점이 떠있는 연봉(連峯)까지 겹치면 장엄한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싱싱한 푸르름을 배경으로 진한 커피를 한잔 들이킨다. 향긋한 원두커피의 향이 피톤치드를 머금은 채 콧속 깊이 파고 든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는 걸어서 20분. 정상까지 나무계단이 나있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힘들이지 않고 오른 산행이지만 그 맛은 짜릿하다. 멀리 왼편으로 가야산, 황매산이 보이고, 정면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오른쪽으로는 계룡산과 적상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리는 탓일까. 대부분 등산객은 여기서 여행의 종지부를 찍는다. 하지만 덕유산의 진면목을 알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중봉으로 향한다. 평탄한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5분 가량 내려오면 대피소를 만난다. 대피소를 지나는 도중 문득 뒤를 돌아다 보았다. 향적봉 정상이 오롯이 드러났다. 설천봉에서 오를 때는 맛볼수 없는 장관이다. 여기서부터 덕유의 숨은 비경이 하나씩 드러난다. 주목과 구상나무의 고사목들이 번갈아 나타나는가 하면, 등산로 옆에는 야생화들이 피고 진다.

중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덕유평전 주변은 노란 원추리꽃 군락이다. 6월부터 피기 시작하는 꽃들은 무더운 여름에 지친 듯 풀죽은 모습으로 늘어졌다.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은 끊일 듯 이어지며 지리산으로 향한다.

중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백련사로 향한다. 오수자굴을 들리는 길과대피소로 다시 온 뒤 내려가는 방법이 있다. 하늘이 잔뜩 흐려지기 시작한다. 시간 단축을 위해 대피소로 돌아와, 백련사로 내려온다. 백련사에서 향적봉으로 오르는 코스는 원래 상당한 난코스라 정평이 나 있다. 내리막길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다. 1시간쯤 걸으니다리에 맥이 풀리며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한다.

그렇게 얼마를 내려왔을까. 갑자기 세찬 물소리와 함께 정겨운 독경소리가귓전을 울린다. 깊은 산속에 살포시 자리잡은 백련사가 나타났다. 산행길에 구경하기 힘들었던 관광객들이 이제서야 눈에 띄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덕유산국립공원관리소 매표소까지는 6km. 속세와 멀리한다는 이속대를 거쳐 백련담, 안심대, 구월담, 비파담 등 구천동계곡을 거꾸로 훑어오다 보니 어느새 인월담에 도착한다.넓은 반석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곳이다. 등산화와 양말을 벗은 뒤 산행길에 지친 발을 담군다. 발끝에서 시작된 냉기가 머리끝까지 전해진다. 이어 구천동에서 가을과의 첫만남을 가져본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